

우리 도자기에 담긴 사연



신희곤
신도중학교 교사

국립중앙박물관 3층 도자기실에 들어서면 하늘빛을 담은 고려청자(高麗靑瓷)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교과서 도판으로 한 번쯤 접해보았을 국보(國寶)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태(姿態)에 놀라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전시되어있는 고려청자는 엄밀히 말해 고려 왕실의 도자기들이다. 그중 일부는 고려 17대 인종(仁宗; 재위 1122~1146년)의 장릉(張陵)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이다. 장릉에서는 인종 시책(諡冊)과 함께 청동 내함, 석제 외함, 청동 인장, 은제 숟가락과 젓가락, 청자 4점이 출토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이다.



[청자 참외 모양 병] 국보, 국립중앙박물관
12세기 전반(1146년 이전), 높이 22.7cm

모양 병(靑磁瓜形瓶)¹⁾이다. 고려청자의 최전성기 때의 유물로 가히 고려 왕실의 유물다운 기품이 서려 있다.

꽃잎 모양의 섬세한 입, 참외 모양의 몸체, 화판(花瓣)을 직선으로 디자인한 굽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특히 굽 받침은 꽃잎이 마치 주름치마처럼 퍼지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고귀한 빛깔과 우아한 모습에서 권위마저 느껴진다. 용도는 꽃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꽃병은 자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약의 발색과 시유 상태도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비색(翡色)²⁾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칭송받고 있다.



[청자 죽순 모양 주전자] 보물, 국립중앙박물관
12세기, 높이 19.27cm

12세기 고려청자는 명품(名品)으로 가득했다. 외형은 식물을 모티브로 하여 병이나 주전자가 많이 만들어졌다. 표주박 모양 병³⁾, 대나무 마디 무늬 병, 죽순 모양 주전자가 대표적이다. 한편 동물을 형상화한 거북이 모양 주전자, 오리 모양 병 그리고 동자(童子) 모양 병 등 각종 상형(象形) 청자도 만만치 않게 제작되었다.

사실 고려 전기 청자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양각이나 음각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회화보다는 조각적 요소를 띠면서 첫발을 떼었기 때문이다. 단색의 순청자도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무신정권(武臣政權)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려는 문신(文臣)의 나라였다. 과거(科擧)를 통해 문반(文班)에 등용된 재추(宰樞)⁴⁾들이 다스리는 나라답게 단아하고 절제된 관료를 연상시키기에 순청자가 제격이었다. 그러나 고려 18대 의종(毅宗, 재위 1145~1170) 연간에 정중부, 이고, 이의방에 의해 시작된 무신정권의 서막이 정계(政界)는 물론 여러 분야

1) 김덕수 외(2020). 중학교 역사 2, 100~101쪽_청자 참외 모양 화병 등. 천재교육.

2) 중국 송의 태평노인이 자신의 책인 [수중금(袖中錦)]에서 고려청자의 비색(翡色)을 천하제일이라 평가

3) 박근철 외(2020). 중학교 역사 2, 100~101쪽_표주박 모양 주전자 등. 지학사

4) 고려 시대 최고위급 관료로서 재상과 같은 벼슬아치를 말한다.

의 변화를 불러왔다. 그중 고려청자의 양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신들은 그저 단순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듯 화려한 고려청자를 선호했다. 음각과 양각 기법은 물론 음각한 곳에 다른 태토(胎土)를 메꿔 빛나는 상감청자의 탄생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았다. 무신정권 당시 제작된 유물들 대부분이 그것을 방증한다. 그 중 대표적인 유물로 국보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靑磁 象嵌雲鶴文 梅瓶)’을 감상해 보자.

매병은 중국 송(宋)나라에서 유래되었으나, 12세기 후반 고려만의 풍만하면서도 유려한 선의 미학으로 재해석 되어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매병의 구연부는 작고 낮으며 밖으로 살짝 벌어져 있다. 사람 형상에 빗대어 어깨는 넓고 당당한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구연부의 아랫부분에는 꽃무늬를 돌렸다. 그리고 몸통에는 백(白)과 흑(黑)으로 상감(象嵌)한 두 줄의 원으로 창을 내어 그 안에는 하늘을 나는 학과 구름을, 밖에는 땅을 향해 내리는 학과 구름무늬를 새겨 넣었다. 이처럼 학의 진행 방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통일성 속에서 변화를 추구했던 의도로 보인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발현이었을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학의 모습도 흑백의 상감으로 날개, 부리, 다리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점 하나를 찍어 생동감을 주고 있는 눈이 압권이다. 매병의 굽 위로는 연꽃무늬를 도식화해서 돌렸다. 이 같은 문양 처리의 능숙함에서 상감청자의 위용은 더욱 빛났다.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국보, 간송미술관
12세기 후반,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높이 42.1cm

고려청자의 발자취를 간략히 돌아보면, 통일신라(676~918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략 9세기 중엽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 건국 직전까지 ‘고려청자’로 전성기를 누렸다. 초창기 청자는 송나라 영향을 받은 탓에 그 형태와 문양 등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고려청자 고유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는다. 고려청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비색(翡色), 동식물과 사람을 본뜬 상형

(象形), 문양을 표현하는 상감 기법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비취색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빛’이라는 의미로 비색(祕色)이라 불렀다. 중국인들의 고려청자에 대한 찬탄⁵⁾은 고려 말에도 여전했다.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기 시작했지만, 고려청자만의 고유한 우수성은 점차 중국인의 수요를 늘리는 명품으로 재탄생 되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자부심 때문에 고려 자기를 자신들의 최고급과 유사⁶⁾하다는 품평으로 같음했으나, 비색만큼은 천하제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송에서 고려로 유입된 중국 자기 현황을 살펴보면, 북송 시대에 편중되어 있다. 이후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 빈자리는 더욱 우수한 고려청자가 채웠다. 12세기 세련된 고려청자의 대량생산⁷⁾이 가능해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고려는 불교(佛敎)의 나라였다. 당연히 고려청자에는 불교적인 색채와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고요하고 차분한 옥과 같은 유색(釉色)에서 푸른 빛이 도는 비색을 추구했고, 동자의 모습이나 연꽃 등의 장식, 정병 등 불교 법구로 제작된 유물들이 절터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그러나 사찰용 못지않게 고려 왕실이나 귀족·관료가 사용한 고려청자의 수도 만만치 않았다. 최고급의 세련된 고려청자⁸⁾가 왕실과 귀족⁹⁾의 부장품이나 유구(遺構) 터에서 수습된 것이 그 사실을 방증(傍證)해 준다. 당연히 고려청자의 최대의 수요자는 왕실이었다. 그 격에 맞게 문외한의 눈으로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고려청자 한 점을 감상해 보자.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¹⁰⁾에 대한 얘기다.

이 향로는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명품 가운데 하나다. 향(香)이 빠져나가는 뚜껑, 향을 태우는 몸통,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있다. 더하여 음각, 양각, 투각, 퇴화(堆花)

5) [성호사설] 제4권 ‘만문물’ 비색 자기에 의하며, 충렬왕 15년(1289) 중국 원에서는 중서성이라는 관청을 통해 청자 옹기, 동이, 병을 사들여 갔다고 했다.

6) 송나라 서경의 [고려도경]; 색이 푸른 것을 고려사람들은 비색(비취색)이라 불렀다. 근래에 색깔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중략> 여요(汝窯)의 새 가마 청자와 비슷했다.

7) 고려 공예터인 만월대 유적에서 수습된 청자기와들이 당시 대량 생산되었던 고급 청자의 일면을 알려준다. 청자 기와들은 가마터에서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표면에 음각 양각의 각종 넝쿨무늬로 장식되어 매우 화려하며 뒷면에 명문이 있는 것도 있다.(2008. 고려 왕실의 도자기, 9쪽, 국립중앙박물관)

8) 12세기 강진 사당리 가마와 부안 유천리 가마에서는 아름다운 고려청자를 만들어 내어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맞는다. 이때가 고려 인종(재위 1122~1146)과 의종(재위 1145~1170) 연간으로 지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려청자의 명품들 대다수를 차지한다.

9) [고려사] ‘세가’ 의종 11년(1157) 기사에 의하면, 양이정(養怡亭)의 기와를 청자로 엮었다는 기록

10) 김덕수 외(2020). 중학교 역사 2, 101쪽_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천재교육.

기법은 물론 상감, 첩화(貼花) 등 다양한 기법이 모두 동원되었다. 그러나 옥에 티처럼 받침 부분 아래쪽이 갈라져 있다. 그런데도 국보로 승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작품성 때문이었다. 바로 향로를 받치고 있는 양증맞은 3마리의 토끼, 특히 점을 찍어 표현한 토끼 눈이 결정적이었다.



[청자동자자연적] 고려,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높이 11.1cm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전체높이 15.3cm, 지름 11.5cm

다시 무신정권 이전 이후로 나눠 대표적인 유물 몇 점을 비교해 감상해 보자. 앞서 보았던 인종의 장릉에서 출토된 또 다른 고려청자 ‘청자 받침대(靑瓷方形臺)’다. 이 유물의 발견이 중요한 것은 청자 받침대가 제작된 곳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이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발굴한 청자 받침대 조각과 너무도 흡사했다. 더불어 청자 참외 모양 병 조각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가마터가 고려 왕실의 도요지(陶窯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유물 중 순청자에 비색을 잘 보여주는 ‘청자 잔과 잔받침(靑磁托盞)’은 왕실이 있었던 개성 부근에서 발굴되었다. 당시 유행하던 전형적인 ‘탁잔’의 양식



[청자 받침대] 12세기 전반(1146년 이전), 국립중앙박물관
인종의 장릉, 높이 8.6cm, 넓이 5.5X16cm



[청자 받침대(조각 일부)]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가마터 출토



[청자 참외 모양 병 조각]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가마터 출토

으로 유약의 발색이 아주 곱다. 고려 왕 의종 또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채 아름다운 청자 탁잔(托盞)에 술을 마시며 연회와 향락에 흠뻑 빠져 지냈을 것이다.

이 당시 연회와 관련하여 빼놓고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있다. 고려 문신이었던 김돈중(金敦中, 1119~1170년)이다. 그는 인종 대에 고려 평장사를 역임하였으나, 3번의 사직소를 올린 끝에 관직에서 물러난 재상의 아들로 유명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집필한 김부식(金富軾, 1075~1151년)이 바로 김돈중의 부친이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 관료였던 김돈중이 술에 취해 무신의 주장 급인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엽기적인 추태를 부렸다. 그러나 의종은 무례한 김돈중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문신(文臣)과 무신(武臣)에 대한 예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자 훗날 무신정변의 전조(前兆)



[청자 잔과 잔받침]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높이 9cm

였다. 이후 문신 한뢰가 무신이자 노장인 이소응을 욕보이는 일이 또 벌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무신정변의 뇌관을 건드렸다. 이 일로 의종은 거제현으로 귀양 가는 신세가 되었다. 1170년 정중부는 인종의 셋째 아들이자 의종의 친동생이었던 명종(明宗, 재위 1170~1197)을 고려 19대 왕으로 추대했다. 은밀히 의종을 다시 옹립하려는 조짐이 있었으나, 곧 발각되어 의종마저 이의민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고 말았다. 이것이 17대 인종과 19대 명종과 달리 18대 의종의 능과 부장품이 없는 이유였다.

명종 역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1197년 최충헌에 의해 폐위를 당하고 창락궁(昌樂宮)에 감금 중 1202년 승하했으나, 다행히 왕릉이 개성시 장풍군 지릉리¹¹⁾에 조성되었다.

이제 무신정권기를 같이 했던 명종의 지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자. 지릉에서 고려청자는 총 12점이 수습되었다. ‘청자 여지 닙쿨무늬 대접’¹²⁾을 포함하여 8점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되었다.

앞서 장식을 최대한 배제했던 모습과 달리 12세기 말기¹³⁾에는 분명 다른 양상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다. 장식성이 커진 것이다. 여지(荔枝)는 가지에 다섯 알의 열매가 달리는 아열대 지방 과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풍토에 맞지 않아 재배하지 않는다. 단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차용되어 도자기에 상감했을 것이다. 왕실 도자기답게 아름다운 비색에 세련미가 일품이다.



[청자 여지 닙쿨무늬 대접] 12세기 말, 국립중앙박물관
높이 8.4cm, 입지름 19.8cm, 굽지름 5.6cm



[청자 닙쿨무늬 완] 국보, 12세기 중엽, 국립중앙박물관
문공유의 무덤 출토, 높이 6.2cm, 입지름 16.8cm,
굽지름 4.4cm

11) 1916년 도굴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촬영한 유리 원판 사진 중 ‘지릉전경(智陵全景)’이 남아 있다.

12) 내·외면을 모두 상감으로 처리하였다. 내면의 구연에는 닙쿨무늬를 백상감하고 그 아래에 5개의 여지(荔枝)를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외면에는 원 안에 모란을 상감한 후, 그 외의 공간을 역상감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비교적 섬세하게 상감 되었는데 유색은 절정기 비색에 비해 탁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양상은 1271년이 하한인 진도 용장성, 완도 범화사 출토 대접과 비교할 수 있다.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도 같은 상감청자 조각이 확인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3) 13세기경(1271년)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도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와 유사한 유물로 고려 의종 13년(1159)에 죽은 문공유(文公裕, ?~1159년) 무덤에서 나온 국보 ‘청자 닝쿨무늬 완’¹⁴⁾도 유명하다. 문공유의 묘지(墓誌)¹⁵⁾와 함께 경기도 개풍군에서 출토된 이 완은 연대를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상감청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12세기 중엽 고려청자 상감의 발달상을 전해주는 소중한 편년(編年) 유물이다. 의종 연간에 청자는 점차 유색과 조형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유약은 더욱 투명해지고 빙렬(氷裂)이라는 가는 금이 많아지며 여러 문양이 상감으로 장식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자 닝쿨무늬 완은 도공의 정성이 자연에 감응(感應)하여 빛은 상감청자의 기품(氣品) 그 자체다.

무신정권 안정기의 마지막 집권자였던 강화도 최항(崔沆, 1209~1257년)¹⁶⁾의 무덤에서 출토된 국보 ‘청자 동화 연화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¹⁷⁾는 한 단계 진일보된 모습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표주박 모양의 몸통에 문양은 연잎으로 둘러싼 형태다. 특히 꽃봉오리 모양의 마개가 인상적이다. 잘록한 목 부분에는 동자(童子)가 연꽃의 봉오리를 감아쥔 모습과 연잎으로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다. 주전자 손잡이는 식물의 덩굴을 안으로 구부려 붙인 모양인데, 위에 개구리 한 마리를 얹혀 놓아 생동감이 넘친다. 물을 따르는 아가리는 연잎을 돌돌 말아 붙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진사¹⁸⁾의 빛깔이



[청자 동화 연화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국보,
호암미술관 → 국립중앙박물관
13세기, 높이 32.2cm, 밑지름 11.4cm

14) 대접의 안쪽 바닥 가운데에 큰 단판국문(單瓣菊輪)을 백상감하고 그 둘레를 백상감 보상당초문(寶相唐草文)으로 채웠으며 입 둘레에도 백상감 당초문 띠를 돌렸다. 이처럼 대접의 안쪽이 백상감만으로 장식된 데 비해, 바깥쪽은 입 둘레에 백상감 당초절지문(唐草折枝文)과 당초문 띠가 있고 그 아래 다섯 군데에 국화 한 가지씩을 흑백 상감한 후 바닥 둘레에 연판문(蓮瓣文) 띠를 음각하였다. 맑은 비색유(翡色釉)가 매우 고르게 씌워져 있어 상감 효과가 한층 돋보이며 유택(釉澤)은 은은하다. 굽다리 바닥에는 구사(硃砂)는 자국이 세 개 남아 있다. 유약과 태도가 극도로 정선되었던 12세기 전반 순청자 전성기의 수작(秀作)들에 비하면 빙렬(氷裂)도 있고 유약도 두꺼워졌지만, 상감 효과를 돋구기 위해 더욱 투명한 유약을 추구해 가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15) 죽은 사람의 이름·신분·행적·자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글(사기판(砂器板)에 적거나 돌에 새겨서 무덤 옆에 묻음). 광지(廣誌).

16) 고려의 문관이자 무관. 무신정권의 집권자. 초명은 만전(萬全)으로 아버지 최우에게 항(沆)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나무 위키)

17) 정현일 외(2018). 중학교 미술 1, 99쪽. 청자 동화 연꽃무늬 표주박 모양 주전자. 비상교육

18) 고려청자에 붉은 색감이 도는 진사로 연꽃을 대담하게 장식한 작품은 13세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연잎 가장자리와 잎맥을 진사로 장식한 이 작품은 인천시 강화 최항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려 고종(재위 1213~1259) 때 작품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뛰어나 13세기 고려청자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무신정권도 무너지고 친원파의 권문세족에 의해 혼탁해진 고려는 1392년 막을 내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청자의 찬란했던 문명도 공동 운명체인 양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정적인 것은 당시 게릴라식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강진 등 고려청자 도요지에서 백성들을 소개(疏開)하면서 쇠퇴해졌을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왕조가 교체된 대변혁기, 뿔뿔이 흩어진 도공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까스로 청자 수요를 감당해야 했다. 물론 청자는 언제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태토와 유약을 구하지 못해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대 수요자였던 왕실의 지원도 끊긴 상태라서 도공들은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기능성 위주의 청자에 치중했다. 관요(官窯)가 아닌 민요(民窯)에서 빚어지면서 각 지방과 시대에 따라 각양각색¹⁹⁾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른바 ‘분청사기(粉靑沙器)’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청자를 구웠으나 푸른빛이 아닌 잿빛의 회색이나 누런색을 띠었다. 그 결핍감을 상쇄하고자 상감할 때 쓰던 백토를 청자 표면에 발라 분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시작이며 우리는 그것을 줄여 ‘분청사기’라 부른 것이다.



[분청사기 상감 물고기 무늬 매병] 보물,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시대, 높이 29.7cm,
입지름 4.8cm, 몸통지름 17cm

보물 ‘분청사기 상감 물고기 무늬 매병²⁰⁾’은 조선 초기에 제작된 매병이다. 고려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19) 분청사기의 종류를 보면 15세기 전반경에 시작된 상감 분청사기와 인화 분청사기와 15세기 후반경 제작된 박지 분청사기, 선각 분청사기, 철화 분청사기가 있으며, 16세기 전반 귀얄분청사기와 덩병 분청사기가 만들어진다.(유홍준, 2001)

20) 이 매병의 어깨 위쪽에는 연꽃잎 모양의 띠를 간략하게 표현했고, 그 아래에는 네골 띠를 상감하여 둘렀다. 몸체의 4면에는 구슬 무늬로 둘러싸 장식한 두 겹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파도 무늬를 배경으로 물고기 두 마리씩을 상감하였다. 원 밖에는 점을 가득 찍어 채우고, 위쪽 4곳에는 학 네 마리를 상감하였다. 허리의 좁은 구획 안에는 꽃과 풀을 추상화하고 그 아래에는 연꽃잎 모양의 띠를 상감으로 장식하였다. 유약은 청자유에 가까운 담청색을 띤 분청유(粉靑釉)를 사용하였다. 이 매병의 복잡한 문양 구성과 유약은 기형과 더불어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국립중앙박물관)

표면적으로는 고려 말 상감청자처럼 보이지만, 문양을 표현할 때 도장을 찍어 무늬를 넣는 인화(印花) 기법이 병용(並用)되었다. 유약도 밝은 회청색으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다. 분청사기의 매력이라면 민요에서 빚어진 만큼 서민적인 느낌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표현력에 있을 것이다.



[분청사기 인화 무늬 병]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높이 27cm, 입지름 7.4cm, 몸통지름 16.8cm



[분청사기 박지 연꽃 물고기 무늬 병]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높이 35cm, 입지름 7.2cm, 바닥지름 9.1cm

영국의 저명한 도예가 버나드 리치²¹⁾가 20세기 현대 도예의 지표를 조선의 분청사기에서 찾고자 했던 이유도 충분히 납득(納得)이 된다.

점차 조선 왕실이 대외적으로 안정되고, 세종 연간 명나라로부터 백자 반상기를 받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자(白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460년대 우산리(牛山里)를 비롯하여 오늘날 경기도 광주 일원에서 가마터가 300여 군

21) 20세기 최고의 도예가였던 영국의 버나드 리치는 자신의 저서 '동서를 넘어서(Beyond the east and west)'에서 20세기 현대 도예가 나아가길 갈은 조선 시대 분청사기가 이미 다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한다. (유홍준, 2001, 재인용)

데나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당시 조선백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물론 300여 개의 가마가 동시에 운영된 것은 아니다. 하나의 분원(分院)²²⁾을 중심으로 땀감을 충당하면서 약 10여 년 주기로 산과 가마터를 옮겨 다녔다. 그중 18세기 전반 금사리 가마는 약 30년간 운영되었고, 1752년 다시 분원리로 옮긴 뒤로는 1883년까지 관요로 약 130년간 운영되었다. 경기도 광주 분원리의 지명(地名)도 이렇게 얻어진 것이다.

분원에서는 왕실 도자기뿐만 아니라 사대부 양반들의 생활 그릇, 문방구, 부장품용 명기(名器)와 지석(誌石) 등도 생산했다. 백자 수요층이 매우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도자기란 도기(陶器)와 자기(磁器)를 통칭하여 일컫는 명칭이다. 도기와 비교해 자기는 유약(釉藥)이라는 특수 물질을 덧씌워 고온에서 구워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양질의 태토(胎土)를 얻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를 굽는 가마 제작 또한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倭)는 도자기 제작 기술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죽하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²³⁾이라 일컫겠는가. 만일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조선 14대 선조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문예에 탁월했던 선조 연간에 백자는 그야말로 정점이었다. 왜는 때를 놓치지



[백자 대접] 보물, 국립중앙박물관
16세기, 높이 12.3cm, 입지름 21.2cm,
바닥지름 8.7cm




[백자 달항아리] 보물,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시대, 높이 41.0cm, 입지름 20.0cm,
바닥지름 16.0cm, 몸통지름 40.0cm

22)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서 쓰는 사기를 만들던 직소(職所)

23) 일본 도자기의 신으로 불리는 이삼평(李參平, ?~1656)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발달시켰다.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의 비조(鼻祖)로 불린다.

않고 당시 조선의 수많은 이들을 강제로 압송(押送)해 갔다. 이들 중 다수의 도공(陶工)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회유와 무력으로 도자기 기술을 전수(傳受)한 왜는 국제 무역²⁴⁾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암울했던 시대, 백자는 탐욕스러운 점령군의 전리품(戰利品)이자 약탈 목록 1호였다. 백자를 생각하면 당시 도공들의 한(恨)과 질고(疾苦)가 함께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순백에 이지적인 고고함을 자랑하는 백자의 이면에는 수난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조선인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백자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렇듯 명품은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성을 담고 있다.

우리는 무심한 듯 놓여 있는 백자 달항아리를 보면서 선조들의 넉넉한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정서(情緒)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물었다. 우리나라 도자기를 명품이라 하는데 도대체 명품과 상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속적이기는 하나 답은 간단하다. 상품은 구매한 순간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지만, 명품은 소장한 날로부터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교과서

김덕수 외(2020). 중학교 역사 2, 100~101쪽. 천재교육.

-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분청사기 상감 물고기 무늬 매병, 청자 참외 모양 화병,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등
박근철 외(2020). 중학교 역사 2, 100~101쪽. 지학사.

-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청자 동화 연화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등

노대환 외(2020). 중학교 역사 2, 101쪽. 동아출판.

-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이병인 외(2020). 중학교 역사 2, 104쪽, 107쪽. 비상교육.

- 청자 인물형 주전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참외 모양 병,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정현일 외(2018). 중학교 미술 1, 99쪽. 비상교육.

- 청자 동화 연꽃무늬 표주박 모양 주전자(고려), 백자 달 항아리(조선)

24) 국제 무역 품목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노예무역도 흥행했다. 짐작했겠지만 이때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조선인이 희생양이 되었다.

정현일 외(2018). 중학교 미술 2, 96쪽. 비상교육.

-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고려), 분청사기 조화 물고기무늬 편병 등

현은령 외(2018). 중학교 미술 1, 109쪽. (주)리베르 스쿨.

- 달항아리(조선 시대)

연혜경 외(2018). 중학교 미술 2, 69쪽. 미래엔.

- 청자 진사 연화무늬 표형주자(13세기경)

김형숙 외(2018). 중학교 미술 1, 96쪽. (주)교학도서.

- 국보 청자 철보 무늬 투각 향로, 청자 상감 모란무늬 표주박모양 주전자 등

• 단행본

국립중앙박물관(2000).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삼덕정판사.

국립중앙박물관(2008). 고려 왕실의 도자기.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2005). 국립중앙박물관_작은도록.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객직원팀(2007). 상설전시관람안내.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2011).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윤용이(2001). 알기 쉬운 한국 도자사. 경기도: 경기도·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 웹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 이미지 출처(원고 내 게시 순)

1. 청자 참외 모양 병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482>

2. 청자 죽순 모양 주전자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351>

3.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1,00680000,11&pageNo=1_1_2_0

4. 인종의 장릉과 사당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잔받침(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1574154115490826036>

5. 청자 받침대(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485>

6. 청자 참외 모양 병 조각

<https://news.v.daum.net/v/20190605031120862>

7. 청자 잔과 잔받침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4230>

8. 청자 여지 닝쿨무늬 대접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492>

9. 문공유 청자 닝쿨무늬 완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662>

10. 청자 동화 연화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http://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2278562&ccbaKdcd=11&ccbaAsno=01330000&ccbaCtcd=11>

11. 분청사기 상감 물고기 무늬 매병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967>

12. 청자동자연적(경향신문)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602051956495#c2b>

13.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1227>

14. 분청사기 인화 무늬 병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294>

15. 분청사기 박지 연꽃 물고기 무늬 병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235>

16. 백자 대접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6842>

17. 백자 달항아리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941>

필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박물관·미술관교육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동아출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신도중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 중이다.